

‘프리미엄 대결’… 지역 백화점, 설 선물세트 본판매

내달 15일까지 프리미엄부터 로컬상품 구성 다양화 나주배·영광굴비 등 지역 가치 담은 상품 등도 선보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이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시즌에 돌입했다. 프리미엄 선물부터 단독으로 기획한 로컬 상품까지 더 특별해진 설 선물세트가 눈길을 끈다.

2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30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 설 선물세트 행사장을 전개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명품 한우, 제철 과일, 신선한 수산물 등 수많은 선택지 중 고객들이 보다 쉽게 선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했다.

정형화된 안심, 갈비 중심의 기존 한우 선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위를 한 세트에 담은 ‘미식형 한우 선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대표 프리미엄 기프트인 신세계 명품 한우 선물세트인 ‘The Signature (더 시그니처)’는 1++ 등급 중에서도 최상급 품질

의 한우를 가장 귀하고 맛이 뛰어난 부위로만 구성했으며, 예약 주문 형태로 진행,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다.

수매, 가공, 제품 포장까지 모든 이력을 까다롭게 관리한 프리미엄 수산물 선물세트 ‘명품 제주 동갈치’는 일반 갈치보다 2~3배 큰 특대 사이즈 몸통만 선별했으며, 청정 제주 바다에서 살집이 오른 겨울에 어획한 제철 갈치 중 특대 사이즈만 선별해 소포장한 프리미엄 세트로 희소성이 높다.

또 프리미엄 선물세트에 빠질 수 없는 위스키, 와인, 샴페인 등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주류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의 해를 맞아 한정수량으로 선보이는 ‘조니워커 블루라벨 말피에디션’도 만나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이미지를 담은 한정판으로 소장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신세계는 30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 설 선물세트 행사장을 전개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지역 가치를 담아 광주신세계가 단독으로 기획한 고품격의 로컬 상품도 눈에 띈다. 국내산 등심과 안심으로 구성된 ‘한우배

산지 알뜰세트 6호’, 장수 사과와 나주 배 세트 ‘로컬 알찬 사과·배’, 굴비의 대표 생산지인 영광굴비 세트도 가격대별로 다양

하게 만나볼 수 있다.

광주지역 업체로 식품첨가제를 넣지 않고 신선한 제철 재료를 이용해 만든 다과

세트인 ‘처음한과 가운세트’와 베이커리 맛집으로 유명한 ‘궁전제과’의 수제쿠키로 구성된 ‘로얄 세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새해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다과, 차 세트를 비롯해 많은 고객들이 설 명절에 많이 찾는 10만원대의 실속형 선물세트 등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한 상품을 담은 선물세트도 알차게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월 15일까지 총 3주간 2026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전 세계 각지에서 엄선한 선물세트를 희소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상품부터 라이프스타일 반영 가성비 있는 ‘실속형 트렌드’ 상품으로 구성해 선택지를 넓혔다.

또 롯데백화점이 엄선해 담은 다양한 프리미엄 선물세트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선물세트를 구성했다”며 “광주신세계가 직접 선택한 로컬상품과 소중한 분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악성 앱제어 서버 추적 솔루션 LG유플러스, 1조8000억 예방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제어 서버를 추적·분석해 약 3만명의 고객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했다.

LG유플러스는 29일 고객 피해 방지 분석 시스템에 ‘악성 앱 제어 서버 추적 솔루션’을 적용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악성 서버 800여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된 뒤 해당 서버에 접속한 이들이 있는 고객 3만3000여명의 정보를 경찰에 공유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약 538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막은 효과가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네트워크 상에서 약 2억2000만건의 악성 앱 접속을 차단했고, 스미싱 URL 유포에 활용되는 스캠 문자도 약 5억4000만건 걸러냈다. 김은지 기자

‘고환율’ 신음…중기부, 정책자금 만기연장 검토

소상공인·중소기업 고환율 애로 점검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자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유통·식품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석했으며, 공무원식품 등 원부자재 수입·공급 대기업 담당자도 참석해 산업 전반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의 대다수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제조 원가와 판매가

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환율 상황에서 원부자재 대량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고환율 장기화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는 ‘환리스크 상담·교육’을 수출 중소기업이 아닌 내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환리스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환율 변동분을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연 1000건)’을 통해

수입 원자재의 연동약정 체결을 확산해 수입 원자재 활용 중소기업의 경영부담도 덜어준다.

연동 우수기업은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25만원 한도의 경영안정바우처를 공급한다. 올해 1만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애로를 상시 파악하고 현장의견은 관계부처로 신속히 전달해 환율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를 항상 청취하면서 환율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경총, 2월 금요조찬포럼 라인업 ‘눈에 띄네’ 심리학·소통·부동산 시장 점검…경영환경 진단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심리학과 소통, 부동산 시장 등 경영 환경 진단을 주제로 2월 금요조찬포럼을 연다. 광주경총은 2월 한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금요조찬포럼 강연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강연은 2월 6일 박연식 작가가 맡아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를 주제로 진행한 다. 박 작가는 방향독서심리상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군부대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와 심리 강연을 이어온 심리학 전문가다.

13일에는 류재언 변호사가 ‘관계가 행복해지는 대화의 기술’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에 나선다. 류 변호사는 법무법인 어센트트윈본 대표변호사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조직 내 소통과 관계 형성에 대한 실



박연식 작가



류재언 변호사



이광수 애널리스트

전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은 27일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맡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이 애널리스트는 독립리서치 ‘광수네북덕방’ 대표다.

양진석 회장은 “2월 금요조찬포럼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조직문화와 소통, 그리고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며 “회원사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휴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